

김정난 "BTS 팬...샤이니에 마음 멀어진 건 절대 아냐"

등록 2026.03.12 10:58:08



[서울=뉴스시스]김정난과 온유(사진=SNS 캡처) 2026.03.12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스시스] 남정현 기자 = 배우 김정난이 그룹 샤이니를 향한 변함없는 팬심을 밝혔다.

샤이니 온유는 11일 김정난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.

이날 김정난은 샤이니의 팬이 된 이유에 대해 "목소리 때문"이라고 말했다. 이어 "샤이니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온유 목소리가 탁 내 귀에 꽂혔다"고 했다.

그러면서 "내 마음에 탁 와서 꽂힌 톤과 소리의 컬러 같은 게 있다"고 덧붙였다.

김정난은 "라이브가 기가 막힌다"며 "칼군무인데 음정이 흔들림이 없다"고 극찬했다.

또 "샤이니도 팬이고, BTS도 팬이고, 에이티즈도 팬"이라며 "작년에는 덕질을 많이 못 했다"고 밝혔다.

특히 "작품하고 고양이들이 너무 아팠다"며 "내가 샤이니에 대한 마음이 멀어진 건 절대 아니다"고 강조했다.

이에 온유는 "'김정난, BTS의 굉장한 팬'이라고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물려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다"며 웃었고, 김정난은 "갈아탄 거 절대 아니다"라고 해명해 웃음을 자아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nam_jh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